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미화^{1*}, 전수진²

¹혜전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²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nfluences of Ethical Value on Attitude toward Patient Safety in Nursing Students

Mihwa Park^{1*}, Soojin Jeon²

¹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yejeon College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S지역 2개 대학의 간호학 전공 4학년 학생 179명이며,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설문조사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은 3.74점으로 중간단계였다. 윤리적 가치관의 대상자관계영역과 간호업무영역, 협동자관계영역은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와 양의 상관, 인간생명영역은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일반적 특성의 학업성적, 전공만족이며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인 대상자관계영역, 인간 생명영역, 간호업무영역이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8.6% 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간호대학생의 교육 정책 개발 시 고려되어야하며 추후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간호, 간호대학생, 윤리적 가치관, 환자안전, 정책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thical values on attitude toward patient safety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79 senior nursing students in S cit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 21 to Sep. 15, 2017.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version 24.0. Nursing students showed 3.74, moderate level in attitude toward patient safety. Subcategory area of ethical values as relationship with nursing client, nursing practices and relationship with collaborator were positively correlated but human-life area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 toward patient safety. The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patient safety were academic score, and major satisfac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sub - item of the ethical values, the client relationship area, the human - life area and the nursing practices area. These factors explained 38.6% of variance. Thes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olicy of nursing students and further study is need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results.

Key Words : Nursing,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s, Patient Safety, Police

*Corresponding Author : Mihwa Park(diamon8231@gmail.com)

Received July 10,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August 12,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인증제 시행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주체인 소비자의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자 안전은 의료현장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질 평가에 환자 안전 전담인력 구성 유무를 포함하고 있다[1].

환자 안전은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의료 오류와 위해사건 발생 가능성을 최소로 줄여서 환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생명보장과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 특히 간호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전문가이며 간호사의 이러한 관심과 인식이 환자 안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이러한 환자안전 간호활동은 간호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간호사를 보호함으로써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2,3]. 2016년부터는 환자 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와 함께 안정적인 환자안전체계를 수립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변화로 간호사들은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4]. 환자안전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이며 이는 환자안전에 대한 수행자신감과 관련이 있고[5]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 수행 능력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6].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는 태도이며 이는 자신의 행동을 유리하게 하거나 안전 의식을 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개인행동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과 그 태도 사이에 큰 관련성이 존재한다[7]. 그러므로 환자 안전보장을 위한 간호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긍정적인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자안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환자안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8]. 이를 위하여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제4차 간호사윤리강령 개정 시 간호사에게 안전한 간호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간호의 전 과정

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이 우선되고 위험이 최소화되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9]. 더불어 3주기 간 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안전간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10].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서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간호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간호대학생이 환자안전의 지식, 태도, 수행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환자 안전관리수행에 자신감을 향상시키므로 환자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의 오류를 감소시킨다[11]. 또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환자안전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과 관련되며 환자 안전과 관련된 올바른 행위로 연결된다[5]. 임상경험이 부족한 간호대학생은 실습에 대한 위축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5,12] 낙상이나 주사침 자상, 환자확인 오류, 투약 오류와 같은 환자안전 사고를 경험하기도 한다[11].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나 태도나 자신감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안전에 관한 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윤리적 가치관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 생각과 신념으로, 간호사가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간호방법과 기술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13]. 즉,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은 간호현장에서 간호행위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고, 간호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도덕적 규범이며 간호사로서 실천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14]. 이러한 윤리적 가치관은 업무의 효율성, 직무 만족, 간호의 질 및 간호사의 건강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15-17] 간호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어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수행의 장애요인[18]이 되기도 한다. 간호대학생 시절은 간호사로서의 전문직관 및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며 이는 추후 간호사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19].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은 윤리적이고 안전한 간호실행과 간호현장에서 의 환자 안전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국내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 환자안전의 태도가 환자 안전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간호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대상자에게서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가 약간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20]. 이는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 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S지역에 위치한 2개 대학의 간호학 전공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G* power analysis program 3.1.9를 사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변인의 수 12개(일반적 특성 8개, 윤리적 가치관 하위영역 4개)로 했을 때 최소 157명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였다.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188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9명을 제외하고 총 17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사용 도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이며 일반적 특성, 윤리적 가치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입원경험, 가족간병 경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2.2.1 윤리적 가치관

이영숙이 개발하고[13] 이순희가 수정 보완한[21]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인간생명영역 8문항, 대상자관계영역 7문항, 업무관계영역 6문항, 협동자관계영역 4문항 등 4개 하위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찬성한다 1점부터 반대한다 5점으로 평가되는 Likert식 측정도구이다. 각 영역은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절대적 공리주의 성향을

1점, 절대적 의무주의 성향을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의무론적 성향의 문항들은 역환산하였다. 이순희 연구[21]에서의 신뢰도는 .714이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도구 신뢰도는 .738, 하위영역인 인간생명영역 .708, 대상자관계영역 .705, 간호업무영역 .629, 협동자관계영역 .512로 나타났다.

2.2.2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환자안전의 태도 도구는 Madigosky 등[22]이 개발하고 박정혜 등[5]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박정혜 등의 연구에서는[5] 신뢰도는 .684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767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학부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구한 후 대상자를 만나 설명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설문지 작성 전 대상자에게 목적, 내용, 연구 참여 자발성, 철회 가능성, 자료 익명성 그리고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수집된 자료는 연구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내용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직접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고, 동의서와는 별도로 연구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5 자료분석

연구를 위하여 SPSS 2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윤리적 가치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은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파악을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91.6%가 여학생, 평균나이 23.16세, 종교가 없는 학생이 63.1%이었다. 학업성적은 ‘3.0-3.5 미만’이 40.8%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대상자는 59.2%, 실습에 대하여 만족하는 대상자는 48.0%이었다. 52.0%의 대상자는 병원입원 경험이 없었으며 가족을 간병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9.8% 이었다.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9)

Characteristics	N	%	Mean±SD	Range
Gender	Male	15	8.4	
	Female	164	91.6	
Ages(year)	22	20	11.2	
	23	133	74.3	23.16±.86
	≥ 24	26	14.5	22-27
Religion	No	113	63.1	
	Yes	66	36.9	
Academic score	≤ 2.99	27	15.1	
	3.00-3.49	73	40.8	
	3.50-3.99	60	33.5	
	≥ 4.00	19	10.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06	59.2	
	Somewhat	65	36.3	
	Not satisfied	8	4.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d	86	48.0	
	Somewhat	75	41.9	
	Not satisfied	18	10.1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86	48.0	
	No	93	52.0	
Family caring experience	Yes	107	59.8	
	No	72	40.2	
Total	179	100.0		

3.2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은 5점 만점에 3.30점 이었다.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의 점수 분포는 인간생명영역 2.56점, 대상자관계영역 3.72점, 간호업무영역 3.49점, 협동자관계영역 3.79점 이었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74점 이었으며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Score of Variables (n=179)

Variables	Range	Min	Max	Mean±SD
Ethical Value				
Human-life	1-5	1.00	4.13	2.56±.53
Client relationship	1-5	2.29	5.00	3.72±.62
Nursing practices	1-5	2.17	5.00	3.49±.57
Collaborator relationship	1-5	2.75	5.00	3.79±.56
Total	1-5	2.56	4.16	3.30±.35
Patient Safety Attitude				
	1-5	2.31	4.63	3.74±.4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의 차이

3.3.1 윤리적 가치관

전체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실습만족도(F=5.04, p=.007)였으며, 실습에 ‘만족한다’인 경우가 ‘불만족한다’인 경우보다 윤리적 가치관이 높았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인간생명영역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실습만족도(F=3.46, p=.034)이었으며, 실습만족도 ‘보통이다’가 ‘불만족한다’보다 인간생명영역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관계영역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전공만족도(F=3.18, p=.044)와 실습만족도(F=3.42, p=.035)이었고, 전공과 실습에 대하여 모두 ‘만족한다’인 경우가 ‘불만족한다’인 경우보다 대상자관계영역 점수가 높았으며 간호업무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 협동자관계영역은 전공만족도(F=5.53, p=.005)와 실습만족도(F=5.41, p=.005)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보통이다’와 ‘불만족한다’보다, 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보통이다’보다 협동자관계영역 점수가 높았고 Table 3과 같다.

3.3.2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학업성적(F=5.27, p=.002), 전공만족도(F=7.70, p=.001), 실습만족도(F=3.65, p=.028)였다. 학업성적은 ‘4.0이상’이 ‘3.0미만’과 ‘3.0-3.5미만’인 경우보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와 ‘보통이다’인 경우가 ‘불만족한다’보다, 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인 경우가 ‘불만족한다’보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았고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3. Difference in Ethical Val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9)

Characteristics	Item	N	Human-life		Client relationship		Nursing practices		Collaborator relationship		Total	
			Mean ±SD	t/F(p) Scheffé Test	Mean ±SD	t/F(p) Scheffé Test	Mean ±SD	t/F(p) Scheffé Test	Mean ±SD	t/F(p) Scheffé Test	Mean ±SD	t/F(p) Scheffé Test
Gender	Male	15	2.47±.52		3.73±.64		3.41±.62		3.82±.59		3.26±.31	
	Female	164	2.57±.53	-.71 (.476)	3.72±.62	.10 (.924)	3.50±.56	-.56 (.580)	3.78±.56	.21(.833)	3.31±.36	-.45 (.654)
Ages (year)	22 ^a	20	2.71±.51		3.54±.61		3.41±.60		3.70±.57		3.27±.40	
	23 ^b	133	2.56±.54	1.31 (.274)	3.74±.62	.95 (.388)	3.49±.56	.25 (.782)	3.77±.56	1.23(.295)	3.31±.35	.11 (.896)
	≥ 24 ^c	26	2.46±.51		3.77±.61		3.52±.60		3.94±.56		3.31±.33	
Religion	No	113	2.55±.50	-.32 (.747)	3.71±.62	-3.89 (.699)	3.44±.55	-1.49 (.139)	3.74±.54	-1.49(.138)	3.28±.36	-1.29 (.200)
	Yes	66	2.58±.59		3.74±.61		3.57±.59		3.87±.59		3.35±.34	
Academic score	≤ 2.99 ^a	27	2.67±.47		3.77±.70		3.53±.60		3.77±.62		3.36±.35	
	3.00-3.49 ^b	73	2.64±.48	2.36 (.073)	3.64±.58	.74 (.528)	3.51±.57	.18 (.910)	3.77±.56	.48(.694)	3.31±.36	.37 (.773)
	3.5-4.0미만 ^c	60	2.48±.54		3.75±.63		3.45±.59		3.77±.55		3.27±.36	
	4.0이상 ^d	19	2.36±.71		3.84±.58		3.49±.43		3.93±.53		3.30±.3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106	2.53±.54		3.81±.63	3.18 (.044)	3.54±.57	1.07 (.344)	3.90±.56	5.53(.005)	3.35±.36	2.53 (.083)
	Somewhat ^b	65	2.63±.50	.99 (.375)	3.59±.56	a>c	3.43±.57		3.62±.52	a>b,c	3.25±.34	
	Not satisfied ^c	8	2.44±.68		3.50±.65		3.33±.45		3.63±.52		3.14±.3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d ^a	86	2.56±.45	3.46 (.034)	3.84±.62	3.42 (.035)	3.57±.56	2.20 (.114)	3.92±.55	5.41(.005)	3.38±.33	5.04 (.007)
	Somewhat ^b	75	2.63±.52	b>c	3.61±.59	a>c	3.44±.58		3.64±.53	a>b	3.26±.36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86	2.49±.59	-.83 (.069)	3.77±.60	1.04 (.301)	3.51±.59	.39 (.700)	3.77±.57	-.45(.651)	3.29±.37	-.36 (.720)
	No	93	2.63±.46		3.67±.63		3.47±.55		3.81±.56		3.31±.34	
Family caring experience	Yes	107	2.61±.48	1.51 (.133)	3.73±.61	.20 (.845)	3.44±.56	-1.34 (.181)	3.81±.55	.73(.468)	3.31±.34	.54 (.593)
	No	72	2.48±.60		3.71±.63		3.56±.57		3.75±.57		3.29±.37	

Table 4. Difference in Patient Safety Attitude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9)

Characteristics	Item	N	Patient Safety Attitude		
			Mean ±SD	t/F (p)	Scheffé Test
Gender	Male	15	3.63±.33		
	Female	164	3.75±.41	-1.10 (.274)	
Ages (year)	22 ^a	20	3.71±.39		
	23 ^b	133	3.74±.41	.10 (.914)	
	≥ 24 ^c	26	3.76±.42		
Religion	No	113	3.70±.42	-1.62 (.108)	
	Yes	66	3.81±.38		
Academic score	≤ 2.99 ^a	27	3.61±.35		
	3.00-3.49 ^b	73	3.66±.43	5.27 (.002)	d>a,b
	3.50-3.99 ^c	60	3.83±.36		
	≥ 4.00 ^d	19	3.97±.38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106	3.82±.37		
	Somewhat ^b	65	3.66±.39	7.70 (.001)	a,b>c
	Not satisfied ^c	8	3.35±.57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d ^a	86	3.82±.37		
	Somewhat ^b	75	3.69±.39	3.65 (.028)	a>c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86	3.73±.43	-.34 (.731)	
	No	93	3.75±.39		
Family caring experience	Yes	107	3.72±.40	-.94 (.347)	
	No	72	3.78±.41		

3.4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전체 윤리적 가치관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정적상관(r=.353, p<.001)이 있었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인 인간생명영역(r=-.297, p<.001)과 음의 상관이 있었고, 대상자관계영역(r=.522, p<.001), 간호업무 영역(r=.376, p<.001), 협동자관계영역(r=.383, p<.001)과는 양의 상관이 있었으며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79)

Ethical Value	Ethical Value					Patient Safety Attitude
	E1	E2	E3	E4	Total	
E1	1					
E2	-.200 (.007)	1				
E3	.016 (.833)	.563 (<.001)	1			
E4	-.115 (.125)	.511 (<.001)	.503 (<.001)	1		
Total	.363 (<.001)	.736 (<.001)	.793 (<.001)	.640 (<.001)	1	
Patient Safety Attitude	-.297 (<.001)	.522 (<.001)	.376 (<.001)	.383 (<.001)	.353 (<.001)	1

E1:Human-life, E2:Client relationship, E3:Nursing practices, E4:Collaborator relationship

3.5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업성적(3.0 미만 기준), 전공만족도(불만족 기준), 실습만족도(불만족 기준) 등 3개와 상관분석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인 윤리적 가치관의 인간생명영역, 대상자관계영역, 간호업무영역, 협동자관계영역 등 총 7개를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1.98로 2근방의 값이므로 오차항들 사이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차항의 분포는 표준화 잔차값이 ±3 이내이므로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의 공차한계는 .16-.90 으로 .10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1-6.11로 10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반적 특성의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한다'(β=.54, p<.001), '보통이다'(β=.42, p=.004)와 학업성적의 '4.0 이상'(β=.22, p<.001), '3.5-4.0 미만'(β=.18, p=.004) 그리고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인 '대상자 관계영역'(β=.33, p<.001), '인간생명영역'(β=-.19, p=.003), '간호업무영역'(β=.18, p=.011) 이었다. 즉,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한 경우에 비해 만족하거나 보통일수록, 학업성적이 3.0미만에 비해 4.0 이상이거나 3.5-4.0 미만일수록,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인 대상자관계영역과 간호업무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영역 점수가 낮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38.6% 이었으며(F=18.32, p<.001, R²=.429, Adj-R²=.405),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 Factors Influencing the Patient Safety Attitude (n=179)

Variables	B	SE	β	t	p	Adj-R ²
(Constant)	2.38	.23		10.24	<.001	
Client relationship	.21	.05	.33	4.44	<.001	.268
Human-life	-.14	.05	-.19	-3.06	.003	.303
Major Satisfaction(R ² :Not satisfied)						
Satisfied	.44	.12	.54	3.76	<.001	.319
Somewhat	.35	.12	.42	2.91	.004	.339
Academic score(R ² :≤ 2.99)						
≥ 4.00	.29	.08	.22	3.65	<.001	.365
3.50-3.99	.15	.05	.18	2.88	.004	.386
Nursing practices	.13	.05	.18	2.56	.011	.405

Durbin-Watson=1.98, F=18.32, p<.001, R²=.429, Adj-R²=.405
Tolerance=.16-.90, VIF=1.11-6.11, R^{*}: Reference group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계,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 교육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적이었으며,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 중 대상자관계영역과 간호업무영역, 인간생명영역 등 3개 영역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은 5점 만점에 3.30점으로 의무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한 이순희[21], 권영미[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윤리적 가치관은 실습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의무론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갖게 되는 간호윤리에 입각한 간호행위의 도덕적 의무감 및 원칙주의적 간호 실행에 대한 기대가 실습만족도와 관련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14,21].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 중 협동자관계영역이 3.79로 가장 의무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21,14]과 간호사[23]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 협동자관계영역은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도덕적 고뇌인 윤리적 딜레마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24]. 이는 간호전문직의 윤리적이고 엄격한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감이 협동자관계영역에서는 마땅히 실행되어야 할 당위성의 특성으로 인식됨을 시사한다. 이순희[21]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실습이나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협동자관계영역에서 의무론적 성향이 강했으며 대상자관계영역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간호전문직의 이타주의적인 소명의식과 관련한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25]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과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환자의 생명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책임감 있는 간호행위를 실행하고 전문가다운 협업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높으며 이는 학생시기부터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의 인간생명영역에 대한 태도는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거나[14, 23]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21] 본 연구 결과 또한 인간생명영역 2.56점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도덕

적 가치와 인간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율성존중의 원칙이 동시에 고려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존엄한 죽음과 관련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양성평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인간생명영역은 실습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공리주의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임상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고 환자의 삶의 질이나 자율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많은 도덕적 갈등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실습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는 인간생명영역에서 가장 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 [26]하며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간호사에게 무력감을 발생시키고[27] 윤리적 딜레마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는 낮다[28].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공리주의적 태도를 보이게 하지만[21] 전체적인 윤리적 가치관의 의무론적 태도를 정립하는 하나의 과정으로[14] 보여진다. 따라서 윤리원칙이나 도덕규칙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과정에서 전문직 윤리에 입각한 올바른 의사결정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학습 등을 적용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3.74점으로 중간수준이며 학업성적이 높거나, 전공과 실습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점수는 높았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임경춘의 연구[20] 3.93점 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의과대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 3.09[22]보다는 높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미희의 연구[25]와 박정혜의 연구[5] 결과인 평균 3.77점과는 유사하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적이 좋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더욱 향상된다는 연구결과[5,20,25]와 같다. 더불어 환자안전 지식이 환자안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5,20] 의료인의 환자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의료 질 평가를 위한 요소들과 관련이 있음을[1] 고려할 때 환자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는 향상되며 더불어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관은 의무주의론적 성향일수록 환자안전의 태도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영역을 살펴볼 때 타 영역과는 다르게 인간생명영역은 공리주의적 성향일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

았다. 연구대상자는 윤리적 가치관의 타 영역과는 다르게 인간생명영역에서는 공리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며 이는 인간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보다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환자 삶의 질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환자안전의 속성은 환자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환자중심의 관점이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29]. 그러므로 인간생명영역이 공리주의의 성향일수록 환자안전의 요소인 환자중심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되며 그로인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점수 또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 학업성적의 영향을 받으며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에서는 대상자관계영역과 간호업무영역이 의무론적 성향일수록, 인간생명영역에서는 공리주의적 성향일수록 의미 있는 영향을 받고 있었다. 환자안전은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우선적 목표로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질적인 환자간호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현장에서 환자의 자율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판단에 대한 요구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대의 흐름에 따른 윤리의식의 변화가 환자안전의 개념과 함께 반영되어지는 교육 정책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이를 통해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간호윤리를 파악하고 양질의 간호제공을 통한 전문직 간호를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절대가치를 존중하는 의무론적 입장이나 환자의 삶의 질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모두 고려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환자안전에 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간호중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은 중간단계였다. 윤리적 가치관의 대상자관계영역과 간호업무영역, 협동자관계영역은 의무론적 성향일수록, 인간행동영역은 공리주의적 성향일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점수는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일반적 특성 중 학업성

적, 전공만족도이며, 윤리적 가치관의 하위영역 중 대상자관계영역, 인간생명영역, 간호업무영역이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8.6%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간호대학생의 교육 정책 개발 시 간호윤리 의식의 변화를 고려한 생명윤리 및 호스피스 간호 교육이 보완되고, 그와 함께 환자 안전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추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일개지역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9 Medical Quality Evaluation Plan*. <https://www.hira.or.kr/co/search.do>
- [2] A. A. Abbott, K. T. Fuji, K. A. Galt & K. A. Paschal. (2012). How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Value an Interprofessional Patient Safety Cours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etwork Nursing*, 7. DOI : 10.5402/2012/401358
- [3] F. Milligan & S. Dennis. (2004). Improving Patient Safety and Incident Reporting, *Nursing Standard*, 19(7), 33-36. DOI : 10.7748/ns2004.10.19.7.33.c3733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Rules of Patient Safety Act*. <http://www.law.go.kr/>
- [5] J. Park & M. Park. (2014).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on Patient Safety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education*, 20(1), 5-14.
- [6] H. W. Cho & J. Yang. (201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mong Health Personnel.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35-45. DOI : 10.7739/jkafn.2012.19.1.035
- [7] Y. I. Cho, J. E. Lee. (2002). A Conceptual Analysis of Safety.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20(2), 45-53.
- [8] M. Vaismorat, M. Salalim & P. Marck. (2011). Patient safety: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and the role of nursing education to provide safe car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8(4), 434-442. DOI : 10.1111/j.1466-7657.2011.00882.x
- [9]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3). *Korean Nurses of Ethics for Nurses*.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201
- [10]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Evaluation Criteria of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http://www.kabon.or.kr/>
- [11] H. S. Jeong, J. H. Kong & M. Y. Jeon. (2017).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121-130. DOI : 10.15207/JKCS.2017.8.6.121
- [12] I. S. Kwon, Y. M. Seo. (2012).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25-33. DOI : 10.5977/jkasne.2012.18.1.025
- [13] Y. S. Lee. (1990).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2), 249-270.
- [14] Y. M. Kwon, (2002). A Study on Moral Judgement and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8(1), 17-28.
- [15] H. J. Park & M. H. Kim. (2005). Concepts Analysis of Ethical Dilemma.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1(2), 185-194.
- [16] K. M. Gutteriez. (2005). Critical care nurse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moral distress. *Dimensions of Critical Care Nursing*, 24(5), 229-241. DOI : 10.1097/00003465-200509000-00011
- [17] K. Torjuul & V. Sorlie. (2006). Nursing is different than medicine: ethical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care in surgical uni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6(4), 404-413. DOI : 10.1111/j.1365-2648.2006.04013.x
- [18] M. C. Corley, P. Minick, R. K. Elswick, M. Jacobs. (2005). Nurse moral distress and ethical work environment. *Nursing Ethics*, 12(4), 381-390. DOI : 10.1191/0969733005ne809oa
- [19] S. Kim & S. Lee. (2017).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Decision Mak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8), 713-726.
- [20] K. C. Lim, M. Park & G. Shin. (2017). Influences of Sense of Ethics and Attitude toward Patient Safety in the Confidence in Patient Saf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4(2), 140-149. DOI :10.5953/JMJH.2017.24.2.140
- [21] S. H. Lee, S. Y. Kim & J. A. Kim. (2007).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3(2), 145-155.
- [22] W. S. Madigosky, L. A. Headrick, K. Nelson, K. R. Cox & T. Anderson. (2006). Changing and Sustaining Medical Students' Knowledge, Skill, and Attitudes about Patient Safety and Medical Fallibility. *Academic Medicine*, 81(1), 99-101.

- [23] M. H. Park & C. S. Kim. (2003). A Study on the Ethical Values of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30-40.
- [24] H. J. Park. (2004). Ethical Dilemma and Coping Types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1),75-83.
- [25] M. H. Park. (2017). Convergenc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atient Safety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317-327.
DOI :10.14400/JDC.2017.15.11.317
- [26] H .J. Jong. (1995). *A study of ethical sense of value and discord of the clinical nurs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27] M. J. Fromer. (1982). Solving ethical dilemmas in nursing practice. *Topics in Clinical Nursing*, 4(1), 15-21.
- [28] A. K. Yang. (2003). *The Relationships between Ethical Dilemma and Job Satisfaction of one gener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29] J. H. Lee & S. I. Lee. (2009). Patient Safety : The Concept and Gener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15(1), 9-18.

박 미 화(Mihwa Park)

[장화원]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8년 2월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환자안전, 노인간호
- E-Mail : diamon8231@gmail.com

전 수 진(Soojin Jeon)

[장화원]



- 1983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85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순천대학교 대학원(이학박사)
- 1986년 9월 1일 ~ 현재 : 청암대학교

-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환자안전, 간호관리
- E-Mail : jeonsoojin0308@gmail.com